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병원 완화의료센터는 매일 두 차례 우리 병원 의료진과 내원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서관 1층 암 교육정보센터에서 진행되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사진은 7월 22일 환자와 직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듣고 있는 모습.

지나호 정답



제776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AMC 리얼스토리 - 유언장을 덮은 기적'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암병원간호2팀 지영아 과장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8월 15일(토)
발표 제780호(2026년 9월 1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소속 :
전화번호 :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김성혁(보안관리팀)

피톤치드 룸&패브릭스스프레이
박은순(외래간호팀)
조혜경(외과간호1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민선(수술간호팀)
오승윤(국제교류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영민(심장검사팀)
이서현(내과간호1팀)
이승주(어린이병원간호팀)
조혜영(심장검사팀)
최예지(진단검사의학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이영란(간호교육행정팀)
진미나(중환자간호팀)



서울아산병원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VOL.778 2026. 8. 1



1만 km 날아온 모로코 삼부자의 2대1 간이식

“아버지, 저희랑 같이 한국에 가서야만 살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는

둘째 아들은 전 세계 간이식센터에 관한 논문을 찾아 읽은 끝에 서울아산병원행을 결심했다. 말기 간부전에 진행성 간암까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아버지를 살릴 곳은 한국뿐이라는 결단으로 모로코 삼부자는 1만 km를 날아와 간이식을 받았고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우리 병원 간이식팀이 모로코에서 온 60대 남성 환자에게 두 아들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2대1 생체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간이식팀은 지난해 단일 의료기관 세계 첫 간이식 9,000례, 2대1 생체간이식 세계 최다 664례를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식 과정의 장애 요소를 모두 극복하고 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진은 모로코 삼부자 가족이 2대1 생체간이식을 집도한 간이식팀 의료진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관련기사 2면)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병원 소식을 한눈에

04 NEWS 박승정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선출

12 잡(job)·담(談) 보호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세심한 간호

10 AMC 리얼스토리 고개를 들고 세상과 눈을 맞출 때

16 문화·생활정보 식탁 위, 여름의 맛

유럽서 포기한 간이식… 세계 최고 간이식센터 찾아 한국행

“한 생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에 축복 있기를”



모로코에서 온 모하메드 엘 케타니 씨(왼쪽)가 자신의 간이식 수술을 집도한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우리 병원 간이식팀이 말기 간부전과 진행성 간암을 앓던 모로코 환자 모하메드 엘 케타니(64세, 남) 씨에게 두 아들의 간 우엽과 좌엽을 이식하는 2대1 생체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20년 전 북아프리카 서쪽 모로코에서 대형 정유회사를 운영하던 모하메드 씨는 C형 간염을 앓기 시작했다. 다행히 10년 전 신약을 복용하면서 간염은 치료됐지만 오랜 투병으로 인해 간의 85%가 손상됐고 간경화와 간부전이 생겼다. 모로코와 프랑스 이중국적자인 모하메드 씨는 지난해 말 프랑스에서 간이식 대기자 검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간암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색전술로 종양을 제거했지만 올해 2월 추적 검사에서 새로운 종양이 추가로 확인됐다.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간내 문맥에도 침범한 상태였다. 프랑스 의료진은 더 이상 간이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모하메드 씨의 두 아들이 나섰다. 프랑스에서 심장외과 의사로 일하는 둘째 아들 오마르 씨는 형 하침 씨와 함께 전 세계 간이식센터에 관한 논문을 찾아 읽은 끝에 서울아산병원을 결심했다. 지난해 초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세계 첫 간이식 9,000례를 달성했고 생체간이식만 연간 400례를 시행하며 생존율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두 아들이 혹여나 수술 후 위험에 빠지진 않을까 걱정하던 모하메드 씨는 아들들의 강한 설득 끝에 4월 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정밀 검사 결과 모하메드 씨는 이식을 진행하기에 장애 요소가 상당히 많았다. 진행성 간암은 이식하면 조기에 재발하고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컸다. 또 체중이 135kg인 환자의 대사 요구량을 충족할 만한 크기의 간을 제공하려면 두 명의 기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2000년 이승규 석좌교수가 세계 최초로 고안한 2대1 생체간이식을 세계 최다인 664례 시행해 왔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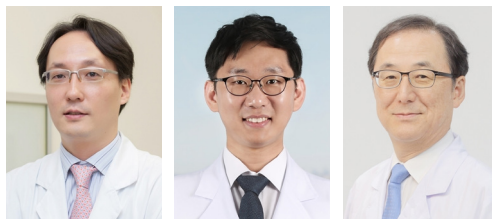
마침내 5월 22일 오전 8시, 세 개의 수술실에 동시에 불이 켜졌고 삼부자는 나란히 수술대에 올랐다. 기증자 간절제는 간이식·간담도외과 송기원·정동환 교수가 맡았다. 첫째 아들의 간 좌엽 기증자 수술은

최소절개 기법으로 복부에 10cm 미만의 작은 절개만 내어 진행했다. 둘째 아들의 간 우엽 기증자 수술은 복강경을 이용해 흉터와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했다.

이어 이승규 석좌교수와 문덕복 교수가 수혜자 간이식을 집도했다. 수술 중 종양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무접촉 기법을 적용해 간 전체를 절제한 뒤 두 아들에게서 받은 간을 이식했다. 횡격막 아래 공간이 예상보다 좁았는데, 부신을 포함한 오른쪽 신장을 복부 앞쪽 아래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한 결과 오른쪽 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아침에 시작된 수술은 새벽 2시를 넘겨 장장 17시간 만에 끝났다. 삼부자는 순조롭게 회복해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승규 석좌교수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모로코 삼부자가 머나먼 한국까지 찾아온 것은 우리나라 간이식 수준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도 전 세계 말기 간질환 및 간암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서 건강을 되찾고 고국에서 새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간이식팀 의료진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씨는 “급격한 암 진행으로 온 가족이 희망을 놓고 있었는데, 한국행을 결심한 두 아들 덕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것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간이식팀 의료진은 누구보다 환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줬고 한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새 삶을 선사해 준 의료진에게 깊은 축복을 전한다”고 말했다.

소아 췌장관 협착 ‘이탈 방지 스텐트’ 효과



박도현 교수

허건 조교수

김경모 교수

반복적인 췌장 염증으로 췌장관이 좁아지면 극심한 복통을 유발해 치료가 필요하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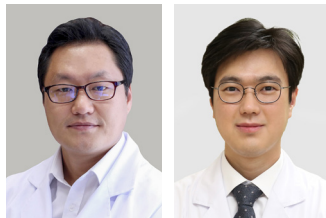
때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췌장관을 넓히는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는데, 소아의 경우 성인보다 췌장관이 얇고 짧아 삽입한 스텐트가 고정된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했다. 소화기내과 박도현 교수, 허건 조교수, 소아청소년전문과 김경모 교수팀이 최근 이탈 방지 기능이 적용된 스텐트로 소아 만성췌장염 환자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스텐트는 양 끝에 날개가 부착돼 있어 췌장관 안에서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연구팀은 2010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우리 병원에서 이탈 방지 금속 스텐트를 이용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을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만성췌장염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약 7년간 시술 효과를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스텐트 삽입 성공률은 100%였으며 치료 기간 중 스텐트가 이탈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치료 성공률은 90.3%로 나타났다. 치료 성공은 좁아진 주췌관이 충분히 확장되고 진통제 사용량이 치료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로 정의했다. 특히 췌장관 협착이 해소된 비율은 96.8%에 달했으며, 중증 합병증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 1명에서 경증 췌장염이 나타났으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회복됐다. 연구팀은 이탈 방지 금속 스텐트를 활용하면 여러 번 반복하던 내시경 시술 횟수가 감소해 환자의 치료 부담이 줄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소화기내시경」에 최근 게재됐다.

망막질환 치료 반응 조기 예측 플랫폼 개발



김준기 부교수

이준엽 부교수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으로는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망막정맥폐쇄가 대표적이다. 치료를 위해 항-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EGF) 주사가 최근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만, 환자 3명 중 1명에서는

치료 반응이 낮거나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융합의학과 김준기 부교수, 안과 이준엽 부교수, 조용하 레지던트, 의공학연구소 이상화 박사 연구팀이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공간에 차 있는 액체인 방수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요 망막질환을 구분하고 치료 반응까지 예측할 수 있는 통합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먼저 ‘금 코팅 아연산화물(Au-ZnO) 나노로드 기반 칩’을 자체 개발했다. 나노 구조체에 방수 샘플을 떨어뜨리

면 방수 속 생체분자들이 막대 모양의 나노로드 사이로 스며든다. 이후 ‘표면 증강 라만 분광법(Surface-Enhanced Raman Spectroscopy)’을 적용해 생체분자의 농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전처리 없이 단 5마이크로리터 이하 소량의 방수만으로 생화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했다. 또한 연구팀은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정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상 대조군과 망막 질환자 등 38명을 대상으로 질환 유무를 선별한 결과 96.45%의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연구팀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환자별 항-VEGF 주사 치료에 대한 반응성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치료 후 영상검사에서는 아직 관찰되지 않는 안구 내 생화학적 변화를 먼저 포착해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치료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선별해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머티리얼즈 투데이 어드밴시스」에 최근 게재됐다.

박승정 석좌교수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 선출



7월 16일 열린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증서 수여식에서 이정복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장, 박승정 석좌교수, 박성현 대한민국의학술원 부회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가 학자로서 최고 명예인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으로 최근 선출됐다. 박 교수는 자연과학부 제4분과(의학·치의학·수의학·약학) 소속으로, 임기는 평생이다. 우리 병원 의료진이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된 것은 2013년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박 교수는 중증 심장질환 스텐트 시술의 개척자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6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SCI급 학술지에 80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 왔으며, 심장혈관연구재단을 설립해 아태 지역 대표 학회인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TCTAP)’를 1995년부터 개최하는 등 심장질환 치료 및 연구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박승정 석좌교수는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으로 선정돼 매우 뜻깊다. 작은 연구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성과는 함께한 동료와 제자들, 그리고 믿고 따라주신 환자분들 덕분이다. 지난 40여 년간 심장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 심장 치료 발전을 위해 꾸준히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료윤리 세미나



의료윤리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명의료소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의료윤리 세미나가 7월 3일 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의료진의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관련 의료진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우리 병원의 환자 중심 의사결정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현황이 소개됐다. 이어 진료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사례 등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ESG 지표 관리 강화

우리 병원은 지속가능한 친환경(E)·사회적 책임(S)·투명 경영(G) 실천을 위해 ESG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종합병원 최초로 발족한 ESG위원회는 13개 영역, 23개 주요 지표와 40개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ESG 동향과 지표별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ESG 지표 평균 이행도는 93%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0.134tCO₂/m² 이하, 전기·용수 사용량은 0.208MWh/m²

이하로 유지했으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일 평균 13.1톤으로 목표치인 16.5톤을 크게 밑돌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폐기물 분리배출 교육 등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표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실시한 상반기 ESG 지표 점검에서도 전반적인 지표 이행 수준이 계획 대비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안전의 날 행사



환자안전의 날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8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가 7월 27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AMC 환자안전 현황 ▲환자기본법 제정과

병원 대응 ▲우수 환자안전 활동 및 개선활동 소개 등이 진행됐다.

환자안전문화 개선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굿 캐치 어워드’는 내과간호2팀 양이레 사원 등 7명, ‘베터 솔루션 어워드’는 응급간호팀을 비롯한 4개 연합팀, ‘베스트 컬처 어워드’는 외래간호팀 외래4 유닛·신경외과 연합팀이 수상했다.

박승일 병원장은 “환자안전은 기본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예방 가능한 위해를 줄이고 더욱 안전한 진료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위생 포스터 공모전



손위생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심장병원간호팀 이정아 주임(왼쪽 네 번째)과 동료들이 정용필 감염관리실장(오른쪽 첫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감염관리실이 진행한 손위생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이 7월 22일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손위생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원내에 올바른 손위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총 92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감염관리실 내부 심사와 직원 투표, 환경디자인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수작품 3점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심장병원간호팀 이정아 주임이, 최우수상은 영상의학팀 서은결 사원, 우수상은 외래간호팀 김미리 주임이 각각 받았다.

수상작들은 향후 원내 손위생 및 감염 예방 활동 홍보물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업무 협약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류창우 진료부원장, 이재환 진료부원장(왼쪽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이 7월 14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과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 및 진료 연속성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의료진 간 협력과 환자 의뢰·회송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한 진료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의 방향에 발맞춰 중증·고난도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환자가 치료 단계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연속성 있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암 환자 ‘패스트트랙’ 진료 확대 운영



유방외과 김희정 교수, 산부인과 채희동 교수, 종양내과 정재호 부교수(왼쪽부터)가 젊은 유방암 패스트트랙 통합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병원이 신속한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해 운영 중인 암 환자 패스트트랙 진료를 기존 위암·대장암에서 유방암·난소암·전립선암까지 확대했다. 패스트트랙은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의뢰된 암 의심 또는 확진 환자가 첫 내원일에 전문의 진료와 필요

한 검사를 원스톱으로 받는 시스템이다.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판독해 두 번째 내원일에 치료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전체 치료 일정을 단축하고 환자의 내원 횟수를 최소화한다.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패스트트랙을 운영한 결과, 진료 예약부터 수술까지 대기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진료 후 수술까지 위암은 평균 19.9일, 대장암은 평균 11.97일이었다. 환자 설문에서도 진료 전 안내, 대기시간 단축, 진료 만족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유방암 패스트트랙은 만 40세 이하 젊은 유방암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가임력보존클리닉 협진 시스템도 구축해 암 치료뿐 아니라 안전한 임신과 출산까지 고려한 치료를 진행한다. 난소암 환자는 산부인과 외래에서, 그 외 나머지 암종은 암통합진료센터에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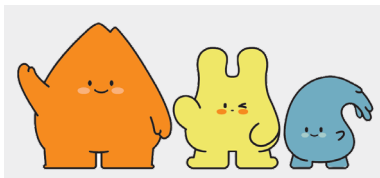
다중 오믹스 워크숍



다중 오믹스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융합연구지원센터와 바이오코어설비센터(CHOICE)가 주관하는 제2회 다중 오믹스 워크숍이 7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원내 암유전체학 연구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째 날에는 ▲전사체 분석의 기초 ▲유방암과 심부전의 공간 전사체 연구 ▲병리 분야 멀티모달 시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참석자들이 ▲전사체 시퀀싱 기반 분석 ▲차등 발현유전자 분석 ▲생물학적 경로와 공동 발현 분석 등 실제 논문 사례를 활용한 실습에 참여하며 분석 활용 역량을 높였다.

우리 병원 대표 캐릭터 ‘안아·모아·코아’



(왼쪽부터) 안아(ANA), 모아(MOA), 코아(COA)

우리 병원 대표 캐릭터 ‘안아’ ‘모아’ ‘코아’가 탄생했다. 알파벳 A, M, C를 모티브로 ‘환자와 보호자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흠어진 정성을 한데 모아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

지고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초 진행된 원내외 공모전에서 접수된 작품 중 브랜드 적 합성, 대중적 공감대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됐으며, 캐릭터 이름은 직원 투표에서 40% 이상 지지를 얻어 최종 확정됐다. 캐릭터는 아산넷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병원 굿즈, 인쇄물, 게시물 등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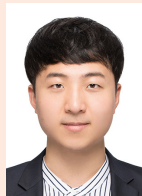
소화기내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홍승욱 부교수



김민규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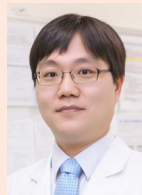
홍주언 임상강사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최근 열린 아시아 염증성 장질환 학술대회 및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AOCC & IMKASID)에서 수상했다. 홍승욱 부교수는 ‘10개 이상 대장선종 환자에서 이시성 진행성 신생물 발생 위험에 대한 다기관 코호트 연구’를 주제로 IMKASID 최우수초록상을, 김민규 조교수는 ‘한국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장초음파 지수의 유효성 검증 연구’를 주제로 최우수포스터상을, 홍주언 임상강사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장초음파 검사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다기관 단면 설문 연구’를 주제로 AOCC 장초음파상을 받았다.

융합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연구팀 국제사업 선정



신항식 교수



김성훈 교수



이상욱 부교수



권혜미 부교수

융합의학과 신항식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교수, 이상욱·권혜미 부교수 연구팀이 한국연구재단의 심화학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연구팀은 ‘고난도 의료 중재 및 치료 시 에이전트 연구실’을 주제로 2029년 6월까지 연구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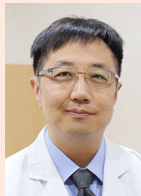
소화기내과·의공학연구소 의료진 학회서 수상



변소영 진료전임강사



정훈용 교수



정기욱 교수

소화기내과 변소영 진료전임강사, 정훈용 교수가 일본 하코네에서 열린 일본헬리코박터학회 학술대회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1차 치료로서 14일 펩스프라잔 기반 삼제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활성대조 임상시험’을 주제로 발표해 젊은 의학자상을 받았다. 변 진료전임강사는 소화기내과 정기욱 교수, 의공학연구소 최경민 연구원, 주세경 교수와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식도질환 국제학술대회에서 ‘기능성 내강 영상 탐침(FLIP)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임피던스 기반 4차원 마노메트리 활용 식도위접합부 확장성 평가를 통한 아칼라지아 진단 향상’을 주제로 최우수 임상연구 초록상을 받았다.

김지현 과장 대한산업보건협회장상



노사협력팀 김지현 과장이 최근 산업보건 발전 유공 대한산업보건협회장상을 받았다. 김 과장은 사명감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이 달의 후원자

		(단위: 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불우환자 지원	이시내	200,000
	NAM DAVID	이정원	1,000,000
강경태	2,000,000	김성준	1,000,000
공분옥	100,000,000	김지오	1,000,000
남주혁	100,000,000	김지은	100,000
문진용	3,000,000	김현중	200,000
백남근	100,000	박재욱	200,000
손숙경	5,000,000	백지현	100,000
송정석	50,000,000	손세윤	200,000
식사위여성의원	15,000,000	손우빈	100,000
(주)오리엔트조선소	100,000,000	송정석	50,000,000
한국투자증권(주)	2,500,000	식사위여성의원	15,000,000
한기대 건축 03	1,600,000	신정우	100,000
호텔더윈	250,000,000	안동욱	517,250
황지연	1,000,000	우진선	3,000,000
		연구	
		네이버(주)	200,000,000
		성준영	1,000,000
		이명희	100,000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강욱주	5,000,000
		- 2026년 7월 14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후크와 척추 성형술의 합병증 예방 효과



정형외과 조성탄 임상전임강사

정형외과 조성탄 임상전임강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척추학술대회에서 ‘근위 인접 분절 실패 예방을 위한 후크와 척추 성형술 비교’ 연구로 최우수e-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정형외과 조재환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는 퇴행성 시상면 불균형 환자에게 장분절 유합술을 시행한 뒤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예방 전략에 새로운 임상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퇴행성 시상면 불균형은 노화로 허리가 앞으로 굽고 몸의 앞뒤 균형이 무너지는 척추 변형으로 서 있거나 걷는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약물이나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으면 여러 척추뼈를 나사와 금속 봉으로 연결해 고정하는 ‘장분절 척추 유합술’을 시행한다. 그러나 척추를 길게 고정하면 척추 윗부분에 부담이 집중돼 뼈나 인대가 손상되고 척추 정렬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근위 인접 분절 실패’라고 하는데, 비교적 흔히 발생하고 심한 경우 재수술이 필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상위 고정 분절 부위에 갈고리 모양의 장치를 연결해 충격을 분산하는 후크(hook)와 척추 뼈에 의료용 골시멘트를 보강하는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이 사용돼 왔지만, 두 술기의 효과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크와 척추 성형술의 근위 인접 분절 실패 예방 효과를 비교해 보다 효과적인 수술 방법을 확인하고자 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분절 유합술을 받은 환자 139명을 척추 성형술군 21명과 후크군 47명, 별도의 보강술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 기명으로 분류해 수술 후 임상영상 결과와 합병증 발생 여부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후크나 척추 성형술을 적용한 환자군의 근위 인접 분절 실패 발생률은 5.9%로 대조군의 21.1%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두 술기 간 직접 비교에서는 후크군 4.3%, 척추 성형술군 9.5%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다변량 분석에서 후크는 교차비 0.04로 근위 인접 분절 실패의 발생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춘 반면, 척추 성형술은 교차비 0.08로 보호 경향만 보였을 뿐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장분절 척추 유합술을 시행할 때 고정 부위 위쪽 척추를 추가로 보강하면 근위 인접 분절 실패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후크가 보다 안정적인 예방 효과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환자별 최적 수술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반 공간 컴퓨팅과 환자의 척추 상태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척추외과 영역에 접목해 척추 수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밀 척추 수술을 실현하고, 수술의 안전성과 치료 예후를 한층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감염관리팀 환자관리 유닛 / 중환자실

칫솔 하나로 지켜낸 생명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AP)은 중환자실에서 가장 흔한 감염으로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이고 재원 기간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다. VAP 예방을 위해 구강간호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잡한 처치에 밀려 충분히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클로르헥시딘(CHG) 가글액과 거즈로 구강 점막을 닦아내는 기존 방식 역시 치아와 잇몸에 붙은 미생물막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2년 미국의료역학회는 CHG 가글액이 VAP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고 흡인 시 오히려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칫솔질을 중심으로 한 구강관리를 권고했다. 감염관리팀은 석션 기능이 있는 실리콘 칫솔로 치아·혀·구개 등 구강 전체를 2분간 닦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했다. 중환자실과 함께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한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가” 등을 하나씩 점검했다. 최신 근거를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변화로 옮기는 일은 두 부서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였다.

원칙과 현실 사이, 접점을 찾다

칫솔은 부드러운 실리콘 브러시로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구강 내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어 미생물의 하기도 유입 위험을 줄이고 간호 행위도 단순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잦은 중환자실에서 칫솔질을 2분간 유지하는 것은 시간적·심리적 부담이었고, 섬망 환자나 기도유지기를 적용한 환자는 구강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중환자실은 구강간호를 단순 위생 관리가 아닌 ‘VAP 예방 필수 처치’로 재정립하고, 구강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요령을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해 적극 공유했다. 감염관리팀도 치아 모형과 색깔이 있는 치약을 활용해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등 치태 제거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낮아진 수치, 높아진 자신감

효과는 데이터로 나타났다. 환자의 구강 점막 발적이 줄고 기관 내 분비물의 균 배양 검사 결과도 개선됐다. 무엇보다 모든 중환자실에서 VAP 발생률 지표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 감염관리팀이 매월 도식화해 제공한 통계 자료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자신이 수행한 간호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됐다.

VAP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감염’에서 ‘표준 간호 중재로 통제할 수 있는 감염’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근무 인계 시 구강 점막 상태와 크러스트(딱지) 유무, 분비물 양상을 빠짐없이 공유하는 것도 이제는 당연한 절차가 됐다. 감염관리팀 역시 중환자실의 물리적 제약과 업무 부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프로세스를 보완해 나갔다. 두 부서는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감염 예방을 위한 협업을 넓혀가며 더욱 안전한 중환자 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시각화한 통계 자료와 치아 모형을 활용해 VAP 예방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협업 활동은 가장 기본적인 간호가 가장 강력한 중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기회였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협업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VAP 예방을 위해 구강간호 프로세스 개선에 참여한 감염관리팀과 중환자실 직원들.

※ 협업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협업의 가치’ 코너에서는 다양한 직종, 부서 간 협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개를 들고 세상과 눈을 맞출 때

수많은 환자들로 북적이는 병원을 거닐 때마다 궁금했다. 다들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나는 선천성 부정교합을 치료 받았고 병원의 ‘희망 나누기 캠페인’의 수혜자로 모든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이러한 인연은 내 삶의 많은 걸 바꿔놓았다. 감추고 싶은 외모와 가정 환경으로 좀처럼 세상에 나를 드러내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용기이자 큰 변화다.

나의 말할 수 없는 비밀

나를 소개하기에 적당한 시작은 일곱 살의 어느 날일 것이다. 새로운 유치원에 갔던 날, 밤이 다 되도록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그곳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 지내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걸 알게 됐다. 부모님의 이혼과 어려운 살림, 낯선 시설에서의 생활... 모든 불행을 곱씹기도 전에, 아빠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였다. 일곱 살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다행히 쌍둥이 언니가 옆에 있었고, 공동생활가정을 총괄하시는 목사님과 사회복지사님의 든든한 보살핌이 있어 모든 날이 춥지만은 않았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에 산다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도망치듯 학교를 옮겼다. 여러 번의 전학을 거치며 나만의 비밀은 쌓여갔다. 친구들과 ‘엄마가 해주는 밥’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면 입을 꼭 다물었고 “너네 집에 놀러가자”라는 이야기에 겁을 먹었다.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싫어 친한 친구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아빠 엄마와 연락이 닿았지만, 함께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더 큰 욕심을 낼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콤플렉스가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심한 부정교합으로 얼굴이 삐뚤어져 있었다. “넌 왜 한쪽으로만 웃어?”라는 놀림이 늘 따라다녔다. 누군가의 시선이 내 입과 턱으로 향하는 것만 같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외모에 부쩍 예민해진 중학생 시절, 사회복지사님은 서울아산병원의 ‘희망 나누기 캠페인’ 수술 치료비 지원 사업을 소개해 주었다. 드디어 얼굴을 치료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성형외

과 최종우 교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뼈가 자라는 시기여서 성인이 된 이후에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을 들었다. ‘나는 다 큰 것만 같은데...’ 집에 오는 길 내내 서럽게 울었다. 성인이 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남은 듯했다.

제 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대학생이 된 이후 직접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의 문을 두드렸다. 평생의 흠이라고 생각했던 안면 기형과 시설에 사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으로 인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1년간의 치아 교정 후 양악수술을 진행했다. “부정교합이 심해 평소에도 음식 씹기 많이 힘들었겠네.” 교수님의 말씀에 “이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라고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받아들이었을 뿐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나의 삶을 누군가 들여다보고 이제 달라질 거라 약속해 주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됐다. 기다려온 수술 날, 마취 직전 열이 나는 바람에 그대로 수술이 취소됐다. 나는 또다시 맥없이 기다려야 했다. “도대체 얼마나 긴장을 한 거야? 누구나 하는 수술이고 내가 잘 해줄 테니까 다음엔 편한 마음으로 와!” 최 교수님은 킬킬하게 웃으며 바로 다음 달로 수술 일정을 잡아 주었다.

수술 직후 입술은 얼굴 중앙에 놓여 있었다. 부기가 빠지면서 음식물을 씹을 때 어금니가 잘 맞물리는 느낌도 생소하지만 기분 좋았다. 최 교수님은 수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하고 웃었다. 명절 직전에 급히 잡힌 수술로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을 대신해 간병을 자처한 아빠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며 호들갑스럽게 이야기했다. 병동 간호사분들께 드리겠다며 간식도 잔뜩 사왔다. 오랫동안 얼마나 미안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았는지 알 것 같았다. 이번 수술로 틀어져 있던 내 일상도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간호사를 꿈꾸는 시간

물론 치아를 2주간 고정시킨 채 생활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힘이 없고 산책도 할 수 없었다. 간병해 주는 아빠에게 괜한 성질을 부리기도 했다. 길지 않은 입원 기간이지만 환자가 되면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알게 됐다.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환자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지.’ 간호학과 졸업을 앞둔 나로선 소중한 경험이었다. 동시에 간호사님들을 관찰하며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았다. 교대할 때마다 병실에 찾아와 인사하고 혈관이나 약물 투여 등을

확인해주었다. 퇴원할 때 얼굴 밴드를 챙겨주며 “용감하게 잘 이겨냈다”라고 다정하게 응원해 주는 모습은 그동안 내가 그려온 엄마의 따뜻함과 닮아 있었다.

사실 처음부터 내 꿈이 간호사는 아니었다. 학창 시절 나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춤에 빠져 입시도 관련 전공으로 준비했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간호학과였다. 그러나 댄스 공연만 보고 나면 이루지 못한 꿈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1년을 겨우 다니고 자퇴를 마음먹자, 목사님은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원하는 걸 시작해도 늦지 않라며 나를 설득했다. 3학년이 되어 현장 실습을 나가면서 흥미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환자들에게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기쁨이 느껴졌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을 거치며 더욱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취업을 준비하는 요즘,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고 있다. 다른 병원에서 열심히 경험을 쌓아서 언젠가 환자가 아닌 경력 간호사로 돌아오고 싶다. 간절히 바라면 감사한 인연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의 바람

간호사가 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다. 나처럼 막막한 상황의 환자들에게 다양한 지원 기회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남보다 한참 뒤쳐진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이들에게겐 세상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아낼 여력조차 없다. 나는 운이 좋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결핍으로 남지 않도록 주변의 도움을 받아왔다. “내 얼굴 많이 틀어졌지?”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색하는 언니와 친구들, 성인이 되고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설에 남도록 배려해주고 치료 지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준 목사님과 사회복지사분들, 그리고 조건 없는 치료 기회와 최고의 의술을 제공해 준 서울아산병원이 내 곁에 있었다. 덕분에 내게 주어졌던 과거를 이해하고 내가 만들어갈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됐다. 나는 마음의 빛을 가지고 의료 현장으로 한 걸음 내디딜 참이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험난한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 병원 의료진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암병원간호2팀 지영아 과장

2002년 산부인과 병동 근무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산부인과 외래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9년 다시 돌아온 산부인과 병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전환되었고, 현재 이곳의 책임 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신규 간호사의 업무를 돕고 중환자 발생 시 업무 분배와 케어, 병상 배정 등 직간접적으로 환자 간호에 참여하고 있다. “보호자가 곁에 없어 환자분이 말하지 않으면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려워요. 계속 들여다보고 관찰하면서 어눌한 말투나 자꾸 잠에 빠저드는 모습 등 어제와 다른 변화를 찾아내야 하죠. 변화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서 환자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이 일의 최우선입니다.” 지영아 과장은 부서 PSN(Patient Safety Nurse)으로 활동하며,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다움’ 모임의 일원으로 일반병동과의 차별화와 간호간병 핵심가치 정착, 그리고 환자안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호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세심한 간호

75병동은 부인암을 비롯한 각종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는 여성 환자 전용 병동이다. 2019년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전환되어 현재 49명의 간호사와 7명의 간호조무사, 4명의 조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는 병실 내 상주하며 간호필요도를 사정한다. 항암 치료, 검사, 부인과 수술, 보존적 치료 환자를 간호하며 그에 더해 자세 변경, 운동, 기저귀 교환, 식사 보조, 세안, 양치 등 일상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신루관, 장루, 흉·복수 배액관, 비위관, 소변줄 등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환자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그 속에 숨겨진 불편감이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를 위해 마련한 침상 옆 안내 보드에는 항암치료 일정과 검사 일정, 식사, 낙상, 욕창, 통증, 운동 보조 등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다. 매일 오전 10시에는 보호자 안심 문자를 일괄 전송해 환자의 일상을 공유하고 상담을 이어간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임종을 준비할 때는 의료진의 지시 하에 보호자 상주를 관리하기도 한다.

“AI시대가 되어도 환자를 공감하고 돌보는 간호직은 대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고령자는 물론 미혼·비혼 가구가 늘면서 돌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확대될 역할과 책임을 알차게 준비해 나가야죠.”



1. 지영아 과장이 병동에서 환자의 운동을 돕고 있는 모습.
2. 보호자와 전화 상담에서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의사전달을 하고 있다.
3. 김다혜 주임과 이종 투약 확인을 하고 있다.

매일 오전 75병동에서는 환자안전 미팅과 ‘알아차림’ 순회가 진행된다. 낙상 위험성을 안내하고 주변 환경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환자 상태 관찰을 위해 낮 동안은 커튼을 열어두고 신발 위치, 침대 높이까지 세심하게 확인한다. “불편 사항은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화장실에 가실 때는 꼭 호출 벨을 눌러주세요.” 간호간병서비스가 낯설어 스스로 해결하려는 환자들에게 매번 반복하는 당부다.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이 예쁜 모자나 두건을 쓰고 계세요. 누군가의 엄마이자 할머니, 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 쓰여요. 시간 날 때마다 다가가서 삶의 일부분을 나눕니다. 힘든 투병 중에도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엔도르핀이 들고 진통제 역할을 한다잖아요. ‘보험왕’ ‘칭찬 기부 천사’ ‘금손 헤어디자이너’ ‘둘째 아들 슈퍼 운영’과 같은 소소한 특징을 메모해 두었다가 다시 만났을 때 이야기하면, 이 큰 병원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환자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세요.”

거동이 어려워 4단계 심한 욕창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매달 입원할 때마다 욕창 크기가 확연히 감소해 있었다. 지 과장은 이전 사진과 비교해 보여주며 격려와 동기부여를 건넸다. ‘엄마는 강하다’는 말을 증명하듯 왜소한 체구에도 힘든 항암과 부작용을 견디는 환자들에게서 도리어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다 보면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예민하던 환자분들도 자주 찾아뵙고 상태를 미리 파악해 간호해 드리면 마음을 열고 너그러워지시죠. 의료 행위를 하기 전 생년월일을 확인할 때 생일이 가까우면 축하 인사를 건넬니

다. 미역국을 신청하고 작은 케이크와 손 편지를 전달하며 우리만의 생일 기분을 내죠.”

오늘 하루만 입원 22명, 퇴원 20명. 해야 할 업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스테이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환자들의 수술, 검사 일정까지 틈틈이 챙기느라 체력이 방전된 상태로 퇴근길에 올랐다. 로비를 지나가다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7년 동안 7번의 수술과 항암을 병행하던 환자였다. 외래에서 항암치료를 진행하면서 타과 입원으로 만나지 못한 최근 2년간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간의 치료 과정과 남은 기대 여명, 가족 걱정 등을 나누다가 결국 서로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정이 든 환자분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돌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20여 년간 항암과 수술을 반복하며 ‘불사조’라고 불리던 환자분이 있었어요. 씩씩하고 낙천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 투병의 고통을 털어놓으시곤 했죠. 결국 뇌출혈로 전원이 결정됐을 때 환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말기 암 환자를 돌볼 때에는 가족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불안을 어루만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마음을 나누며 환자의 마지막 시간을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순간도 있지만, 항암 초기에 괴로워하던 환자분이 건강하게 걸어서 퇴원할 때 간호사로서 많은 위안과 보람도 느껴며 일하고 있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잡(job)·담(談)’ 코너에서는 우리 병원 각 부서의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작은 멈춤이 지킨 환자의 내일



수술간호팀 박소현 주임

수술실은 수많은 소리로 가득한 공간이다. 의료진의 대화, 환자의 질문과 대답, 모니터 알람음까지. 한 수술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수술이 이어지고, 그 사이에도 크고 작은 정보들이 끊임 없이 오간다. 그중에서도 수술실 입구에서 이뤄지는 환자 확인은 이름과 등록번호를 맞춰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환자의 상태와 수술 전 준비사항은 물론, 수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전달됐는지까지 다시 한번 살펴며 앞선 확인을 이어받는 중요한 과정이다.

어느 주말, 응급수술을 위해 한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했다. 나는 다른 환자의 퇴실을 돕고 있었고, 입구에서는 입실 전 환자 확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오가는 대화가 어딘가 매끄럽지 않았다. 질문과 대답은 분명 이어지고 있었지만 서로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음 수술 준비로 자리를 옮겨야 했지만 이대로 입실해도 괜찮을지 마음이 쓰였다. 나는 잠시 멈춰 확인 과정에 함께하기로 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환자는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편한 분이였다. 평소 중국어를 공부해 왔던 나는 조심스럽게 중국어로 무슨 일인지 물었다. 환자는 수술 전 식사를 했으며 털어놓았다.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금식은 단순한 준비사항이 아니다. 충분한 금식 없이 마취가 진행되면 흡인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식사 사실을 섣뜻 말하지 못했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어렵게 잡힌 응급수술이었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수술이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다

는 불안이 컸던 것이다. 환자의 말 속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 간절함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 함께 느껴졌다.

나는 환자의 불안을 달기 위해 현재 상황과 금식이 필요한 이유와 충분한 금식 없이 마취를 진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된 시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수술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해당 내용을 곧바로 집도의와 마취의, 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에게 전달했다. 발견한 정보가 환자안전으로 이어지려면 관련된 의료진 모두가 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연기 사유와 앞으로의 일정을 안내했고, 나는 그 내용이 환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국어로 설명했다. 환자는 병동으로 돌아가 수술 전 필요한 금식 시간을 채우기로 했고, 다행히 수술 일정도 다음 날로 조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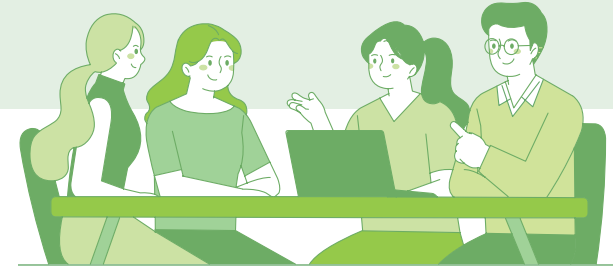
환자가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작은 확인 한 번이 환자의 안전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같은 질문이라도 환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의료진을 신뢰하고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피는 태도가 절차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도 함께 배웠다.

의료 현장에는 언어와 문화, 상황의 차이로 미처 예상하지 못한 틈이 생기기도 한다. 그 틈을 메우는 일은 거창한 절차가 아니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대화 속에서 한 번 더 묻고 확인하는 작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그 작은 멈춤의 무게를, 나는 그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같은 갈등, 서로 다른 억울함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



직장에서는 갈등이 생길 때 양쪽 모두 자신은 충분히 노력했지만 상대는 자신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역할 수행은 피로, 업무 부담, 여건 같은 상황을 탓하면서(외적 귀인), 상대의 비슷한 행동은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성격 탓(내적 귀인)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귀인 이론에서는 이를 행위자-관찰자 편향(actor-observer bias)이라고 합니다. 이 편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원래 다루어야 할 업무나 역할의 조정 문제는 사라지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논점이 옮겨갑니다.

직장 관계에는 암묵적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누구도 확인해 준 적 없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어긋나는 순간 업무상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로 바뀌고, 신뢰가 무너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분노의 이면에는 기대했던 관계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배신감이 자리 잡습니다. 뒤따라오는 반추와 통제감 상실은 상처를 더욱 깊게 합니다. 그 결과 갈등은 현재의 사건을 넘어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다'며 과거의 기억까지 다시 해석하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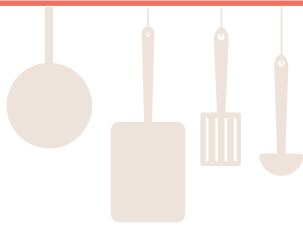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공정성을 이야기한다는 점도 문제를 키웁니다. 조직공정성 이론에서는 이를 상호작용 공정성(내 이야기가 존중받았는가)과 분배적 공정성(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가)으로 구분합니다. 한쪽이 상호작용 공정성을, 다른 쪽이 분배적 공정성을 묻고 있다면 대

화가 반복될수록 서로를 더 답답하게 만들 뿐입니다.

문제 해결은 감정의 정당성과 사실, 행동의 책임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힘들고 억울한 감정은 충분히 이해받을 필요가 있지만, 감정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사실보다 해석을 먼저 믿기 쉽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나를 무시했다'는 것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업무 변경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나를 소모품처럼 여긴다'는 해석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이 사실처럼 굳어질수록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게 되고 갈등은 커집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필요한 조치를 이야기할 때 비로소 문제는 다룰 수 있는 크기로 줄어듭니다.

통제감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낄수록 상황을 피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선택지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감정의 강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는 누구에게 판단을 요청해야 하는지,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계가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는 당장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내용만 명확하게 소통하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공식 채널로 분리하며, 문제가 재발했을 때 개입할 제3자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사람의 성격이 아닌 조정 가능한 행동과 구조의 문제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상대를 좋아하지 않아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식탁 위 여름의 맛



무더위에 지친 날에는 입안을 산뜻하게 채워주는 음식 한 접시가 더없이 반갑다. 제철 식재료가 가진 신선한 맛으로 더위는 잠시 잊고 기운을 채워보자. 익숙한 재료에 새로운 조합을 더해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여름 레시피를 소개한다. <편집실>



수박 페타치즈 샐러드

수박 800g, 오이 1/3개, 루꼴라·청상추·바질 (5:3:3 비율), 하몽, 페타치즈, 레몬즙,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꿀, 후추

- Recipe**
- 1 수박은 씨를 제거해 한입 크기로 썰고, 오이는 얇게 슬라이스한다.
 - 2 루꼴라, 청상추, 바질은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그릇에 담는다.
 - 3 수박과 오이, 하몽, 페타치즈를 올린다.
 - 4 올리브오일 1큰술, 레몬즙 1큰술, 꿀 1작은술을 섞어 뿌리고 후추를 약간 갈아 마무리한다.

TIP 페타치즈는 양젖과 염소젖으로 만든 그리스 대표 치즈다. 짭조름한 맛이 특징으로 수박, 토마토 등 과일과 잘 어울린다.

토마토 빙수

얼린 토마토 2개, 그릭요거트 200g, 얼음 1조각, 알룰로스

- Recipe**
- 1 그릭요거트와 토마토는 미리 냉동해 두고, 사용 30분 전 냉장실로 옮겨 해동한다.
 - 2 통째로 얼린 토마토를 물에 잠시 담갔다가 십자로 칼집을 네 겹집을 벗긴다.
 - 3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소량의 소금, 알룰로스 3큰술과 함께 간다.
 - 4 요거트를 먼저 담고 토마토 푸레를 층층이 얹는다.



오이 두부 비빔밥

공깃밥 1공기, 부침용 두부 1모, 명란젓 80g, 오이 1/2개, 김가루, 참기름, 통깨

- Recipe**
- 1 오이는 채 썰고, 명란은 겹집을 제거해 알만 준비한다.
 - 2 두부는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하고 깍둑썰어 노릇하게 굽는다.
 - 3 참기름 1큰술을 두르고 통깨 1작은술을 뿌린다.
 - 4 모든 재료를 비빔밥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 김가루를 올린 뒤 골고루 비벼 먹는다.

TIP 취향에 따라 아보카도, 반숙 계란을 추가한다.



갯잎 스무디

갯잎 10장, 바나나 1개, 사과 1/2개, 플레인 요거트 150g, 우유 또는 두유 100ml, 꿀, 얼음 약간

- Recipe**
- 1 갯잎과 사과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2 믹서기에 갯잎, 사과, 플레인 요거트, 우유(또는 두유), 얼음을 넣는다.
 - 3 꿀 1큰술을 넣고 곱게 간다.
 - 4 기호에 따라 우유(또는 두유)를 조금 더 넣어 농도를 맞춘다.

금굴 피클

오이, 금굴, 딜, 소금, 화이트 발사믹, 물, 피클링 스파이스

- Recipe**
- 1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금굴을 2~3번 깨끗이 세척한다.
 - 2 피클물은 물:식초:설탕 = 2:1:1 비율로 만든다.
 - 3 금굴은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다.
 - 4 유리병에 재료를 순서대로 넣고 이를 정도 숙성한다.

TIP 냉장 보관 시 소비기한은 약 3주다. 한 번에 많이 만들기보다 조금씩 자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딜은 허브의 한 종류로 상큼한 향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다. 연어 요리나 샐러드에 자주 사용된다. 피클링 스파이스는 피클이나 장아찌를 만들 때 향과 풍미를 더해주는 향신료 혼합 재료다. 없다면 통후추+월계수잎, 통후추+겨자씨, 계피스틱, 마늘+건고추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쿠스쿠스 샐러드

쿠스쿠스 100g, 뜨거운 물 100ml, 병아리콩 100g, 방울토마토 10개, 오이 1/2개, 적양파 1/4개, 파슬리, 페타치즈, 레몬즙,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 Recipe**
- 1 쿠스쿠스에 뜨거운 물을 붓고 5분간 불린 뒤 포크로 가볍게 풀어준다.
 - 2 오이, 토마토, 적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3 쿠스쿠스와 채소, 병아리콩을 넣고 섞는다.
 - 4 올리브오일 2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1/4작은술, 후추 약간을 넣고 버무린다.
 - 5 페타치즈를 손으로 부숴 올리고 파슬리를 뿌려 마무리한다.

TIP 쿠스쿠스는 밀가루를 작은 알갱이 형태로 만든 북아프리카 전통 음식이다. 뜨거운 물만 부어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샐러드나 곁들임 메뉴로 많이 활용된다.

레몬 버터 파스타

스파게티면 2인분, 버터 30g, 마늘 5쪽, 레몬 1개, 파마산치즈, 파슬리,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 Recipe**
- 1 끓는 물에 면과 소금을 넣고 15분 정도 삶은 뒤 면수 1컵을 남긴다.
 - 2 팬에 올리브오일 1큰술과 버터 30g을 넣고 마늘을 노릇하게 볶는다.
 - 3 삶은 면과 면수 3~4큰술을 넣고 섞는다.
 - 4 레몬즙 2큰술과 레몬 제스트를 넣은 뒤 파마산치즈 2큰술을 넣어 농도를 맞추고 후추를 뿌린다.

TIP 레몬즙은 불을 끈 뒤 넣으면 향이 더 오래 유지된다.



병원 밖에서 만난 세상

재활은 병원 밖에서 완성된다

재활의학과 차승우 조교수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는 언제나 '병원'에 온 모습이다. 외래 의자에 앉아 증상을 이야기하고, 처방전을 받아 들고 돌아서는 뒷모습까지가 내가 아는 환자의 전부였다. 환자의 일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활의학과 의사이면서도 정작 그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을 직접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 나를 이번 봉사활동으로 이끌었다.

6월 27일 송파가락종합복지관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봉사에 참여했다. 스무 가정을 다섯 개 조로 나눠 조마다 네 가정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우리는 복지지도를 포함해 간단한 의학적 상담과 운동 교육을 하고 생활 물품을 전달했다.

첫 번째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진료실에서는 알 수 없던 것들이 내 눈을 붙잡았다. 뜯지 않은 채 서랍 한쪽에 쌓여 있는 약봉지,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묻자 돌아온 머뭇거림,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의 적막한 방 하나하나가 낯설고 마음에 걸렸다.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의사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그 약을 제때 챙겨 드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곁에 돌

봐줄 사람이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진짜 변수였다. 진료실에서 건네던 “약 잘 챙겨 드세요.”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도 그래서야 느낄 수 있었다.

재활의학과 의사의 눈으로 본 주거 환경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가파른 계단, 방과 거실 사이의 높은 문턱,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는 화장실 바닥. 병원에서는 평평한 치료실에서 치료사와 함께 보행 훈련을 하지만 환자가 돌아가 생활해야 하는 공간은 전혀 다른 환경이다. 치료를 잘 마치고 퇴원하더라도 이러한 환경에서는 낙상의 위험이 있고,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환자를 집 안에서 움직이기 어렵게 한다. 재활은 병원 안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완성되는 곳은 집이다.

진료실로 돌아온 뒤 환자에게 건네는 내 질문은 조금 달라졌다. 짧은 외래 시간이지만 환자의 병원 밖 삶을 한 번 더 그려보게 된 것이다. 병원 담장 밖에서 만난 세상은 내게 큰 선물을 남겼다. 환자를 질환이 아니라 저마다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앞으로도 환자의 병원 밖 삶까지 헤아리는 의사이고 싶다.

굿바이
쿨클리시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너무 틀어 머리가 땀하고 몸살처럼 몸이 으슬으슬해지는 '냉방병'.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 1:1로 매칭되는 영어 단어는 없지만 air-con sickness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냉방병 증상을 설명할 때는 “I have chills(오한이 들다)”와 “I feel weak(기운이 없다)”처럼 풀어서 말하자.

냉방병

☹️ air-conditioner disease

😊 air-conditioner sickness

Let's Talk

- A You look under the weather. Are you okay?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 B I think I have air-con sickness.
I left the AC on all night.
냉방병인 것 같아요. 밤새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뜨거운 물에 데면 빨갧게 부어오르고 물집까지 잡힐 수 있다. '뜨거운 물에 데어 물집이 생겼어요'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데인 상처는 'burn', 물집은 'blister'. 이 두 단어만 기억하자. “I burned myself with hot water and got blisters”처럼 표현하면 어떤 경위로 데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전달할 수 있다.

뜨거운 물에 데어 물집이 생겼어요

☹️ I got burned by hot water and had blisters.

😊 I burned myself with hot water and got blisters.

Let's Talk

- A What happened to your finger?
손가락이 왜 그래요?
- B While cooking, I burned myself with hot water and got blisters.
요리하다가 뜨거운 물에 데어 물집이 생겼어요.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풍납동 사진관

여름을 담은 소리

“오늘따라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미 소리와 나무 그늘,
꽃내음이 머무는 길.

치료를 향해 바삐 걷던 발걸음도
생명의 숲에서는 잠시 느려집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외과간호팀 최세민 유닛 매니저

‘마음건강노트 -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무력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울 때가 있는데, 그 감정에 ‘도덕적 손상’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감각이 직업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영양팀 차경선 주임

‘AMC 리얼스토리’ 코너는 매번 챙겨 읽습니다. 나의 최선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면, 코너에 소개된 사례들을 읽으며 우리 병원 직원으로서 함께 보람을 느낍니다.

소화기내시경팀 류현정 선임기능

심장지킴이 콘서트가 진행됐다는 기사를 반갑게 읽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귀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IT전략팀 이진우 과장

‘문화·생활정보 -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드게임 한 판’이 유용했습니다. 마침 아이들과 함께 할 보드게임을 찾고 있었는데 덕분에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임상시험센터 박해정 대리

‘병원 밖에서 만난 세상 - 의료봉사가 데려다준 40년 전 골목길’을 읽으며 마음이 몽글했습니다. 고향에서 진료에 나선 정문용 교수님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